

미국 조지아 주 메트로 애틀랜타 한인사회의 성장과 공간적 분포

이승철* · 이의한**

요약: 본 논문은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와 인근 지역(이하 메트로 애틀랜타)의 한인인구와 한인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메트로 애틀랜타 한인사회의 전반적인 성장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메트로 애틀랜타에 입지한 한인업체의 시기별 성장과정과 주요 지역 및 업종별 입지 동향 분석을 통해 한인업체의 공간적 분포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애틀랜타 한인 이민의 역사를 살펴보았으며, 메트로 애틀랜타 한인업체의 입지 동향과 주요 업종별 입지 동향을 지역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메트로 애틀랜타 한인업체의 주요 입지는 교통의 발달, 새로운 지역의 개발, 교육 여건, 인종별 주거 비중의 변화 등으로 인해 애틀랜타 북동쪽의 외곽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한인업체의 주요 업종은 미국의 제도, 한인 거주민의 이주, 시장 전략 등에 따라 소매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 부동산업과 금융업으로 전환되었고, 소매업의 입지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주요어: 조지아 주, 메트로 애틀랜타, 한인업체의 주요 입지, 부동산업, 금융업, 소매업

1. 서론

한인의 이민 역사는 많은 고통을 수반하였고, 민족의 역사와 운명을 함께 하였다(윤흥기 · 임석희, 1997). 1903년 101명의 한인들이 하와이에 도착한 이래 지난 100여 년간 미국의 한인사회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이전, 2001). 2009년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은 총 210만 명을 넘어섰다(<http://www.mofat.go.kr>). 서부의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 동부의 뉴욕과 워싱턴 D.C., 중서부의 시카고 등을 중심으로 성장한 한인사회는 최근 들어 동남부의 애틀랜타, 남서부의 달라스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애틀랜타와 인근 지역(이하 메트로 애틀랜타)

은 미국에서 한인사회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손꼽힌다. 메트로 애틀랜타의 한인사회는 1994년 대한항공의 취항과 1996년 하계 올림픽의 개최를 계기로 급속히 성장하였고, 미국 내 한인사회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를 잡았다(이전, 2003). 본 논문은 메트로 애틀랜타의 한인인구와 한인업체의 시기 및 지역별 분포와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메트로 애틀랜타 한인사회의 전반적인 성장 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해외 한인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를 이해하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높인다는 차원을 넘어 한민족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연구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는 향후 한국의 이민정책과 해외동포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부교수

**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부교수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주로 문헌조사와 현지답사를 통해 수행되었다. 문헌조사에서는 미국 통계국(U.S. Census Bureau)의 인구통계자료와 메트로 애틀랜타의 한인 상가 안내책자인 한인록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인구통계 자료로는 센서스(Census), ACS(American Community Survey), PEP(Population Estimates Program) 등이 있다. 센서스는 10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전수조사(全數調査)에 기초한 자료이고, ACS와 PEP는 센서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해의 인구를 추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표본조사(標本調査)에 기초하고 있다. PEP는 인종과 관련된 자세한 통계는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ACS 자료를 이용하였다.

미국의 센서스는 센서스 기간 중에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인(Korean)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주재원, 장·단기 유학생, 연수생, 불법체류자, 단기 방문자 등 체류 신분이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미국 내의 모든 한인들이 통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당수의 한인들이 센서스에서 누락되어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인들이 자신의 체류 신분이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센서스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단기 방문자의 상당수가 자신이 센서스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센서스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영어가 자유롭지 않은 한인들이 언어 상의 불편함으로 인해 센서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센서스 상의 한인인구와 외교통상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한인인구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2000년 센서스 결과 한인인구는 총 1,076,872명이었으나 2001년 외교통상부에서 발표한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미국의 한인인구는 총 2,123,167명으로 그 차이가 무려 104만 명을 넘었다(U.S. Census Bureau, 2000; <http://www.mofat.go.kr>).

한편 한인록은 1970년대 초부터 발행되었는데

1990년대 초반까지는 인명록 중심이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상가록 중심으로 편집체제가 개편되었다. 그 결과 1990년대 초반까지는 한인록에 수록된 업체 수가 제한적이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한인록에 수록된 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한인록과 관련해 한 가지 주지해야 할 사항은 한인록에 수록된 업체는 주로 한인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업체들로만 제한된다는 점이다. 한인들이 경영하는 업체 중 상당수는 한인이 아니라 타민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업주 입장에서는 굳이 자신의 업체를 한인록에 수록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뷰티 서플라이(beauty supply)의 경우 대부분의 고객이 흑인이기 때문에 업체가 한인록에 수록된다 하더라도 별다른 광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다수의 고객들이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광고 자체가 영업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업종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세탁업이다. 메트로 애틀랜타에는 한인들이 운영하는 약 1,000개의 세탁업체가 있으나 한인록에는 세탁업체에 관한 정보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한인의 자영업 종사비율이 대단히 높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대체로 아시아계 소수민족들이 자영업에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인의 자영업 종사비율은 다른 인종·민족에 비해 월등히 높다(Min, Pyong Gap, 1988; 최병목, 1996). 지금까지 미국 사회에서 자영업에 많이 종사하는 인종·민족은 유대인이나 중국인, 인도인 등으로 알려져 왔으나 한인의 자영업 종사비율은 이들 집단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임석희, 2009).

본 논문의 연구지역은 메트로 애틀랜타이다(그림 1). 그림 1은 메트로 애틀랜타의 주요 한인업체 분포지를 보여준다. 한인업체의 주요 분포지는 캡(Cobb), 풀턴(Fulton), 디캡(De Kalb), 귀넷(Gwinnette) 카운티 등이다. 특히 귀넷 카운티의 둘루스(Duluth), 노크로스(Norcross), 도라빌(Doraville)과 풀턴 카운티의 애틀랜타(Atlanta) 등에는 한인업체가 집중적으로 분

포하고 있다.

2. 메트로 애틀랜타 한인 이민의 역사

1) 1980년 이전

애틀랜타 땅을 최초로 밟은 한국인은 구한말 개화파로 널리 알려진 윤치호 선생이다. 갑신정변에 가담했던 윤치호는 정변이 실패하자 1885년 중국 상하이로 도피하였고, 이곳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 미국으

로 건너갔다. 1888년 윤치호는 미국 테네시 주 내쉬빌(Nashville)에 있는 밴더빌트 대학(Vanderbilt University)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입학하였다. 테네시에서 3년간 공부하던 그는 1891년 조지아 주 커빙턴(Covington) 인근의 옥스포드 대학(Oxford College of Emory University)으로 학교를 옮겼다. 옥스포드 대학은 에모리 대학(Emory University)의 전신으로 옥스포드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금은 에모리 대학의 분교이다. 윤치호는 옥스포드 대학에서 1893년까지 공부한 후 다시 중국 상하이로 돌아가 활동하다 출국한 지 10년만인 1895년에야 귀국하게 되었다(이전, 2001; Bishop, 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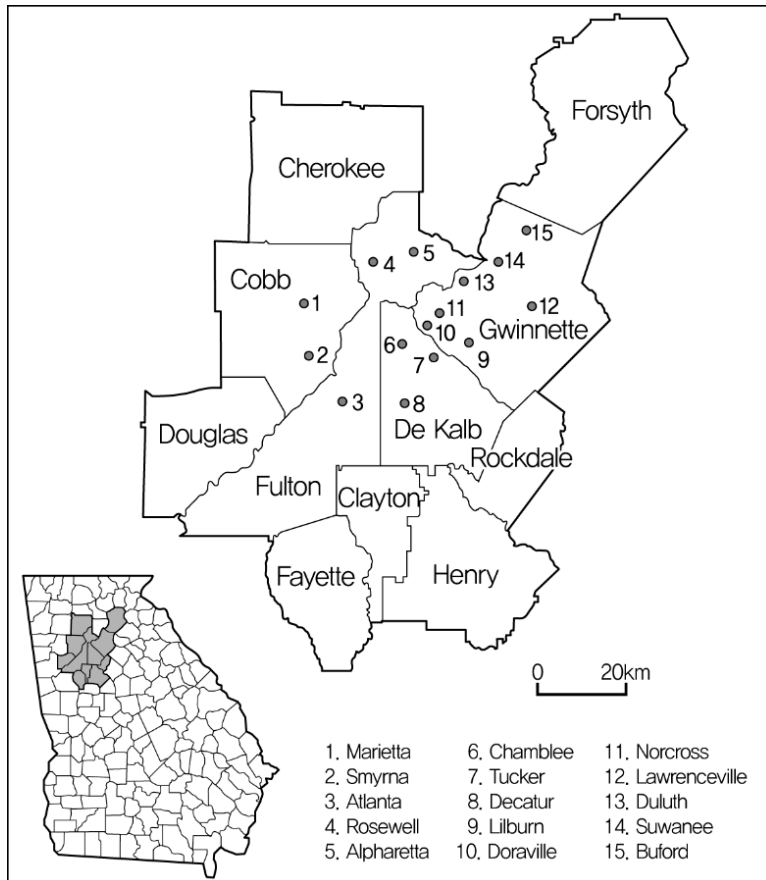


그림 1. 메트로 애틀랜타의 주요 한인업체 분포지

표 1. 조지아 및 미국의 한인인구(1940~2008년)

(단위: 명)

연도	조지아(A)	미국(B)	A/B
2008	53,915	1,344,267	4.01%
2006	45,846	1,335,075	3.43%
2004	40,178	1,251,092	3.21%
2002	N/A	N/A	N/A
2000	28,745	1,076,872	2.67%
1990	15,275	798,849	1.91%
1980	5,968	354,593	1.68%
1970	921	69,130	1.33%
1960	N/A	N/A	N/A
1950	N/A	N/A	N/A
1940	3	1,711	0.18%

출처: U.S. Census Bureau(Census, American Community)

윤치호 선생이 옥스포드에서 공부하였다는 기록 이후 1930년대까지 조지아에서 한인에 관한 기록을 찾기는 어렵다. 윤치호 이후 한인에 관한 기록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1940년 센서스 자료이다. 1940년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당시 조지아에는 3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었다(표 1). 그러나 이들이 어느 곳에 살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1950~60년대 애틀랜타에 거주했던 한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광복 이전 애틀랜타에는 한인 의사 한 명과 예모리 대학에서 공부하던 유학생(송정률)이 있었다고 한다.

1950년과 1960년의 센서스에서는 1940년의 센서스와 달리 인종별 분류에서 한국인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조지아에 거주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당시 애틀랜타에 거주했던 한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1950년대 후반에는 예모리 대학과 조지아 텍에서 공부하던 10명 미만의 유학생들이 애틀랜타에 거주하고 있었고, 1960년 중반에는 유학생과 이민을 포함해 모두 30여 명의 한인이 애틀랜타에 살고 있었다(이전, 2001).

애틀랜타 한인사회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한 것은 다수의 한인들이 한국이나 미국의 다른 주로부터 이주해 들어온 1970년 이후이다. 이는 1967년 7월부터

이민 쿼터제를 폐지한 새로운 이민법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다수의 한인들이 본격적으로 미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 이민법은 1986년 레이건 정부에서 다소 개정되었지만 그 골격은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최협, 1997; 이전, 2008).

애틀랜타 한인사회의 초기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은 간호사들이었다. 간호사들은 1971년과 1972년에 많이 들어왔는데, 당시 애틀랜타에서는 한국 간호사의 자격이 그대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미국 각지에서 간호사들이 몰려들었다. 이 간호사들 중에는 독일에서 바로 미국으로 들어온 간호사들도 있었다. 독일이나 한국에서 들어온 간호사들은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등을 경유하여 애틀랜타로 들어왔다(이전, 2001). 한편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1970년 조지아에는 총 921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었다(표 1). 당시에는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한인들보다 콜럼버스(Columbus)나 오거스타(Augusta)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수가 더 많았다고 한다.

2) 1980년 이후

1980년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당시 조지아에는 총

5,968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는 전미(全美) 한인인구 354,593명의 약 1.6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표 1). 메트로 애틀랜타의 주요 카운티별 한인인구는 디캡(DeKalb) 카운티 1,270명, 풀턴(Fulton) 카운티 486명, 캡(Cobb) 카운티 368명, 클레이턴(Clayton) 카운티 361명, 귀넷(Gwinnet) 카운티 185명 등으로 나타났다(표 2). 즉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하는 메트로 애틀랜타의 주요 카운티에 약 2,700명이 한인들이 살고 있었다. 여기에 메트로 애틀랜타 외곽의 한인들까지 감안하면 조지아의 한인인구 중 절반 가까운 수가 메트로 애틀랜타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센서스에 나타난 한인의 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제 한인의 수보다 상당히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1990년 당시 조지아의 한인인구는 총 15,275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약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메트로 애틀랜타의 경우, 귀넷 카운티와 캡 카운티의 한인인구는 2,423명과 1,686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귀넷 카운티는 약 13.1배, 캡 카운티는 약 4.6배 성장하였다. 또한 디캡 카운티와 풀턴 카운티의 한인인구도 각각 2.7배, 2.5배 증가하였다(표 2). 1990년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메트로 애틀랜타의 주요 카운티에는 약 9,500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었다. 이에 메트로 애틀랜타 외곽의 한인들까지 포함하면 조지아의 한인인구 중 2/3 가까운 수가 메트로 애틀랜타에 거주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당시 조지아에는 총 28,745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조지아의 한인인구는 전미 한인인구의 약 2.67%로 1980년에 비해 그 비율이 1% 정도 높아졌다(표 1). 메트로 애틀랜타의 카운티별 한인인구 동향을 살펴보면 귀넷 카운티와 풀턴 카운티의 한인인구는 각각 9,298명과 4,116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귀넷 카운티는 약 3.8배, 풀턴 카운티는 약 3.4배 증가하였다. 그 결과 귀넷 카운티가 조지아의 모든 카운티 중 한인인구가 가장 많은 카운티가 되었다. 반면 디캡 카운티와 클레이턴 카운티의 한인인구는 3,185명과 562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디캡 카운티는 250명, 클레이턴 카운티는 161명이 감소하였다(표 2). 한편 메트로 애틀랜타의 주요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의 수는 약 20,700명으로 조지아 한인인구의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조지아의 한인인구는 총 53,915명으로 2000년에 비해 약 1.9배 증가하였다. 이는 전미 한인인구의 약 4.01%에 해당하는 수치로 1980년에 비해 그 비율이 2.4배 이상 늘어났다(표 1). 메트로 애틀랜타의 주요 카운티별 한인인구는 귀넷 카운티 21,276명, 풀턴 카운티 6,413명, 캡 카운티 6,345명, 디캡 카운티 4,102명, 포사이스(Forsyth) 카운티 3,096명 등으로 나타났다(표 2). 주목할 만한 것은 귀넷 카운티와 포사이스 카운티에서는 지속적으로 한인인구가 증가하였으나 다른 카운티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한인인구가 감소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조지아

표 2. 메트로 애틀랜타의 주요 카운티별 한인인구(1980~2008년)

(단위: 명)

지역	1980	1990	2000	2002	2004	2006	2008
Gwinnett	185	2,423	9,298	N/A	12,704	17,941	21,276
Fulton	486	1,204	4,116	N/A	7,692	7,495	6,413
Cobb	368	1,686	3,379	N/A	2,784	6,773	6,345
DeKalb	1,270	3,435	3,185	N/A	4,499	2,151	4,102
Forsyth	6	17	131	N/A	N/A	1,137	3,096
Clayton	361	723	562	N/A	N/A	N/A	304
Georgia 주 전체	5,968	15,275	28,745	N/A	40,178	45,846	53,915

자료: U.S. Census Bureau(Census, American Community Survey)

의 한인인구가 특정 지역으로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귀넷 카운티의 한인인구는 조지아 한인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현재 메트로 애틀랜타의 주요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의 수는 약 42,000명으로 조지아 한인인구 5명 중 4명이 메트로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외교통상부에서 발표한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2009년 5월 1일 현재 조지아의 한인 수는 95,300명(남 45,090명, 여 50,21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ACS 자료의 한인 수 53,915명보다 41,385명이 많은 것이다. 체류 신분별로는 미국 시민권자가 15,400명, 영주권자 43,300명, 일반 체류자 29,400명 그리고 유학생이 7,200명이었다(http://www.mofat.go.kr).

3. 메트로 애틀랜타 한인업체의 지역별 입지 동향

1) 메트로 애틀랜타 한인업체의 주요 카운티별 입지 동향

지난 30년간 메트로 애틀랜타의 한인업체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입지하였고, 시기에 따라 입지 동향이 변화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이 변화하는 한인업체의 입지 동향을 카운티별로 살펴보고 분석하였다.

메트로 애틀랜타의 한인업체는 1980년 37개였으나 1990년대 이후의 급격한 증가를 거치면서 2008년에는 무려 2,136개에 이르렀다. 2008년 현재 메트로 애틀랜타의 한인업체 중 53.6%가 귀넷 카운티에 입지하였고, 디캡 카운티에 24.0%, 풀턴 카운티에 15.8%

표 3. 메트로 애틀랜타 한인업체의 카운티별 입지(1980-2008년)

단위: 개(%)

County	1980	1990	2000	2008
Barrow	0(0.0)	0(0.0)	2(0.2)	5(0.2)
Cherokee	0(0.0)	0(0.0)	3(0.3)	5(0.2)
Clayton	1(2.7)	3(2.8)	22(2.2)	22(1.0)
Cobb	3(8.1)	11(10.3)	77(7.7)	78(3.7)
Coweta	0(0.0)	0(0.0)	1(0.1)	1(0.0)
De Kalb	9(24.3)	38(35.5)	420(42.1)	512(24.0)
Douglas	0(0.0)	0(0.0)	1(0.1)	4(0.2)
Fayette	0(0.0)	0(0.0)	1(0.1)	5(0.2)
Forsyth	0(0.0)	0(0.0)	1(0.1)	8(0.4)
Fulton	24(64.9)	41(38.3)	241(24.2)	337(15.8)
Gwinnett	0(0.0)	14(13.1)	221(22.2)	1,145(53.6)
Hall	0(0.0)	0(0.0)	0(0.0)	5(0.2)
Henry	0(0.0)	0(0.0)	4(0.3)	5(0.2)
Newton	0(0.0)	0(0.0)	0(0.0)	1(0.0)
Rockdale	0(0.0)	0(0.0)	2(0.2)	1(0.0)
Spalding	0(0.0)	0(0.0)	1(0.1)	1(0.0)
Walton	0(0.0)	0(0.0)	0(0.0)	1(0.0)
계	37(100.0)	107(100.0)	997(100.0)	2,136(100.0)

자료: 워싱턴 인체소, 각년도

가 입지하였다(표 3).

가장 많은 한인업체가 입지한 귀넷 카운티는 1980년까지 한인업체가 전혀 없었으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 221개 업체, 2008년 1,145개의 업체가 입지하였다. 반면 1980년까지 메트로 애틀랜타에서 한인업체가 가장 많았던 폴턴 카운티는 이후 한인업체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메트로 애틀랜타 전체 한인업체에 대한 폴턴 카운티의 비중은 1980년 64.9%에서 2008년 15.8%로 크게 감소하였다(표 3). 이는 1980년 이후 폴턴 카운티의 한인업체가 다른 카운티로 분산되었고, 이들 대부분이 귀넷 카운티로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한인업체가 많은 디캡 카운티는 한인업체가 1980년 9개에서 2000년 420개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메트로 애틀랜타 전체 한인업체에 대한 디캡 카운티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다(표 3).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한인업체는 1980년대에 애틀랜타가 속한 폴턴 카운티를 중심으로 입지하였으나 1990년대에는 폴턴 카운티의 동쪽에 있는 디캡 카운티로 대거 이동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디캡 카운티의 북동쪽에 있는 귀넷 카운티로 급속히 이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메트로 애틀랜타 한인업체의 지리적 분포가 시기별로 변화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2) 메트로 애틀랜타 한인업체의 주요 도시별 입지 동향

메트로 애틀랜타 한인업체의 입지는 카운티별로 차별성이 나타나지만 도시별로도 큰 차별성을 보인다. 본 절에서는 많은 한인업체가 입지하고 있는 폴턴, 디캡, 귀넷 카운티의 한인업체 입지 동향을 도시별로 살펴보고 분석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폴턴 카운티의 한인업체는 주로 애틀랜타에 입지하였으나¹⁾ 애틀랜타의 입지 비중은 점차 감소하였다. 즉 1980년대까지 폴턴 카운티의 한인업체는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입지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한

인업체는 다른 도시로 분산 입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애틀랜타의 한인업체는 1980년 23개에서 2008년 258개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입지 비중은 1980년 95.8%에서 2008년 76.6%로 감소하였다(표 4).

한편 알파레타(Alpharetta)의 입지 비중은 2000년 8.3%에서 2008년 12.2%로 증가하였고, 로즈웰(Roswell)의 입지 비중은 1990년 2.4%에서 2008년 9.8%로 크게 증가하였다(표 4). 이는 1990년대 이후 한인업체의 입지가 애틀랜타에서 알파레타와 로즈웰로 분산 입지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폴턴 카운티 수준에서 한인업체의 입지 분산률은 증가하였으나 메트로 애틀랜타 수준에서의 실질적인 분산률은 극히 낮았다. 이는 한인업체의 입지 분산이 폴턴 카운티 수준에서 일어나기 보다는 다른 카운티에서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디캡 카운티 한인업체의 입지는 디케이(Decatur) 중심에서 도라빌을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1980년까지 디캡 카운티의 한인업체는 디케이(55.6%)를 중심으로 입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디케이의 입지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2008년의 입지 비중은 4.0%에 불과하였다. 1980년 1개의 한인업체만 입지하였던 도라빌은 1990년 이후 업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08년 현재 한인업체 수가 403개, 입지 비중은 78.7%에 달하였다(표 4). 또한 챔블리(Chamblee)에도 상당수의 한인업체가 입지하였다.

한편 2000년에서 2008년 사이에 도라빌의 한인업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메트로 애틀랜타 전체 한인업체에 대한 도라빌의 비중은 29.5%에서 18.7%로 감소하였다(표 4). 그리고 디캡 카운티의 다른 도시들도 입지 비중이 감소하였다. 이는 2000년 이후 폴턴 카운티를 제외한 다른 카운티로 한인업체의 입지 분산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귀넷 카운티는 1990년대에 한인업체의 주요 입지로 새롭게 부상하였다. 1980년에 귀넷 카운티의 한인업체는 전혀 없었고, 1990년에 입지한 한인업체는 14개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한인업

체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0년에 219개, 2008년에 1,145개의 한인업체가 귀넷 카운티에 입지하였다(표 3).

귀넷 카운티의 한인업체는 둘루스(54.8%)를 비롯하여 노크로스(24.4%), 스와니(Suwanee, 9.5%), 로

렌스빌(Lawrenceville, 3.8%) 등에 분포한다. 특히 둘루스의 입지 비중은 1990년 7.1%에서 2008년 54.8%로 크게 증가하였다. 스와니의 입지 비중은 둘루스에 비해 높지 않으나 2000년대에 접어들어 한인업체의 수와 입지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표 4). 이는 둘

표 4. 메트로 애틀랜타 한인업체의 도시별 입지(1980-2008년)

(단위: 개(%))

County	City	1980	1990	2000	2008
Fulton	Alpharetta			20(8.3)	41(12.2)
	Atlanta	23(95.8)	38(92.8)	203(84.2)	258(76.6)
	College park		1(2.4)	2(0.8)	
	East point	1(4.2)		2(0.8)	2(0.1)
	Hapeville		1(2.4)	3(1.2)	
	Johns Creek				2(0.1)
	Rosewell		1(2.4)	9(3.7)	33(9.8)
	Sandy Springs			1(0.4)	
	Union City			1(0.4)	1(0.0)
소계		24(100.0)	41(100.0)	241(100.0)	337(100.0)
De Kalb	Chamblee		5(13.2)	54(12.9)	48(9.3)
	Clarkston	1(11.1)		1(0.2)	2(0.4)
	Decatur	5(55.6)	6(15.8)	17(4.0)	20(4.0)
	Doraville	1(11.1)	23(60.5)	294(70.0)	403(78.7)
	Dunwoody			15(3.6)	7(1.4)
	Lithonia		1(2.6)	3(0.7)	2(0.4)
	Stone Mountain	1(11.1)	1(2.6)	10(2.4)	6(1.2)
	Tucker	1(11.1)	2(5.3)	26(6.2)	24(4.7)
소계		9(100.0)	38(100.0)	420(100.0)	512(100.0)
Gwinnett	Buford			2(0.9)	21(1.8)
	Dacula			1(0.5)	1(0.1)
	Duluth		1(7.1)	42(19.2)	627(54.8)
	Grayson				1(0.1)
	Lawrenceville			23(10.5)	81(3.8)
	Lilburn		1(7.1)	12(5.5)	21(1.8)
	Loganville			1(0.5)	1(0.1)
	Norcross		12(85.8)	129(58.9)	279(24.4)
	Snellville			2(0.9)	1(0.1)
	Sugar Hill			3(1.4)	3(0.3)
	Suwanee			6(2.7)	109(9.5)
소계		0	14(100.0)	219(100.0)	1,145(100.0)
조지아		37	107	997	2,136

자료: 워싱턴 인썬소, 각년도

루스에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있던 한인업체 중 일부가 스와니로 분산 이동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메트로 애틀랜타 한인업체의 입지 동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카운티 수준에서 한인업체의 입지는 풀턴 카운티와 디캡 카운티에서 귀넷 카운티로 이동하였다. 둘째, 도시 수준에서 한인업체의 주요 입지가 변화하였다. 디캡 카운티는 디케이에서 도라빌, 귀넷 카운티는 노크로스에서 둘루스로 입지의 중심이 이동하였다. 셋째, 한인업체의 입지 중심이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도라빌은 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 이민 초기 도매업을 중심하는 다수의 한인업체가 모여들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어 히스패닉과 흑인들이 도라빌로 대거 이주하면서 한인들은 도라빌에서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도매업을 제외한 상당수의 한인업체와 한인들이 도라빌을 떠난 상황이다²⁾. 도라빌을 떠난 한인들 중 다수는 인근 귀넷 카운티로 이주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우수하고 교통이 편리한 둘루스로 한인들의 이주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한인업체의 입지 중심도 애틀랜타 북동쪽의 외곽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4. 메트로 애틀랜타 한인업체의 업종별 입지 동향

2008년 현재 메트로 애틀랜타 전체 한인업체에 대한 비중이 높은 지역은 둘루스(29.4%), 도라빌(18.9%), 노크로스(13.1%), 애틀랜타(12.1%)의 순이며, 한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은 부동산업, 소매업, 금융업 등이었다(표 5). 그러나 한인업체의 주요 업종은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2000년 한인업체의 주요 업종은 소매업(14.4%), 음식점 및 주점업(9.0%), 도매 및 상품 중개업(8.0%), 부동산업(7.1%), 보건업(6.6%)의 순이었으나 2008년 한인업체의 주요 업종은 부동산업(16.0%), 소매업(13.6%), 금융업

(8.1%), 보건업(6.9%), 음식점 및 주점업(6.1%)³⁾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6). 본 절에서는 메트로 애틀랜타 한인업체의 주요 입지 지역을 중심으로 한인업체의 업종 현황과 입지 동향을 분석하였다.

2000년 이후 메트로 애틀랜타의 한인 부동산업과 금융업은 크게 팽창하였다. 부동산업체는 1990년 7개에서 2008년 341개로, 금융업체는 1990년 1개에서 2008년 173개로 급격히 증가하였다(표 6). 이는 한인의 급증과 더불어 클린턴 행정부가 저소득층의 주택 보유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의 도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⁴⁾.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은 1994년 이후 매년 25% 이상 성장하여 2006년 미국 전체 담보대출 시장의 약 10% 수준인 1조 2,000억 달러를 차지하였고, 2006년 신규 모기지론 중 약 20%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었다(산은경제연구원 2007). 그 결과 미국의 주택 거래량은 급증하였고, 메트로 애틀랜타의 한인 부동산업체와 금융업체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투자 목적으로 소득 여력 및 계약금 지급 능력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이 급증하면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크게 높아졌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소위 '서브프라임 위기'가 2008년에 발생하게 되었다. 그후 미국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침체로 접어들었고, 이와 함께 메트로 애틀랜타의 한인 부동산업체와 금융업체도 점점 감소하였다⁵⁾.

한인 부동산업체의 지역별 분포는 둘루스(44.6%), 애틀랜타(14.1%)⁶⁾, 노크로스(10.6%), 도라빌(9.1%)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7). 도라빌은 교통의 중심지로 이민 초기 도매업을 비롯한 다수의 한인업체가 입지하였다. 그러나 히스패닉과 흑인들이 급증하면서 도매업을 제외한 상당수의 한인업체와 한인들이 도라빌을 떠났기 때문에 메트로 애틀랜타 전체 한인 부동산업체에 대한 도라빌의 비중은 2000년 15.5%(11개)에서 2008년 9.1%(31개)로 감소하였다(표 7).

한편 2000년 이후 귀넷 카운티의 지역재개발로 인한 한인업체의 이전으로 둘루스가 한인업체의 입지

표 5. 메트로 애틀랜타 한인업체의 지역별 업종 분류(2008년)

County	City	41	42	46	47	56	61	64	66	68	71	75	85	86	91	95	96	100	Total (개) (%)
Cobb	Marietta	1	3	1	6	3	2	0	0	7	0	0	4	4	1	6	8	6	52 2.4
	Smyrna	0	0	0	1	1	4	1	0	1	0	0	0	2	0	1	0	1	12 0.6
De Kalb	Chamblee	1	3	3	4	4	0	4	0	3	4	0	1	9	0	5	3	4	48 2.2
	Decatur	0	0	0	7	3	2	0	1	1	0	1	0	1	0	1	2	1	20 0.9
	Doraville	7	11	58	68	28	5	23	9	31	18	7	9	28	17	25	26	33	403 18.9
	Tucker	1	2	1	1	3	2	0	0	3	1	0	1	2	3	2	1	1	24 1.1
Fulton	Alpharetta	2	3	1	6	0	0	3	1	4	4	0	8	4	1	1	2	1	41 1.9
	Atlanta	3	14	23	32	11	6	32	11	48	17	9	8	11	1	5	2	25	258 12.1
	Rosewell	0	0	0	4	0	0	0	1	16	0	0	3	2	1	2	0	4	33 1.5
Gwinnett	Buford	1	1		4	2		1		4				2		1		5	21 1.0
	Duluth	16	16	4	84	53	8	55	11	152	28	14	38	43	14	10	33	48	627 29.4
	Lawrenceville	10	15	2	11	4	4	1	0	11	0	0	6	0	1	1	3	12	81 3.8
	Lilburn	1	4	0	0	0	0	0	2	10	0	1	2	0	0	0	0	1	21 1.0
	Norcross	13	18	14	22	6	5	51	7	36	13	3	9	18	4	17	16	27	279 13.1
	Suwanee	4	10	5	21	7	1	2	1	7	9	4	6	8	3	3	10	8	109 5.1
others		1	9	3	20	6	7	0	2	7	3	1	7	13	5	6	0	17	107 5.0
Total (%)		61	109	115	291	131	46	173	46	341	97	40	102	147	51	86	106	194	2,136 100.0
		2.9	5.1	5.4	13.6	6.1	2.2	8.1	2.2	16.0	4.5	1.9	4.8	6.9	2.4	4.0	5.0	9.1	100.0

주: 41종합 건설업, 42전문직별 건설업, 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47소매업, 56음식점 및 주점업, 61통신업, 64금융업, 68부동산업, 71전문 서비스업, 75사업 지원 서비스업, 85교육 서비스업, 86보건업, 91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95수리업, 96기타 개인서비스업, 100 기타

자료: 워싱턴 인쇄소, 2009

표 6. 메트로 애틀랜타 한인업체의 업종 분류(1980-2008년)

	41	42	46	47	56	61	64	66	68	71	75	85	86	91	95	96	100	Total
1980	0	1	3	9	1	0	1	3	2	2	3	0	2	0	4	0	8	37(개)
	0.0	2.7	8.1	24.3	2.7		2.7	8.1	5.4	5.4	8.1	0.0	5.4	0.0	10.8	0.0	21.6	100.0(%)
1990	0	3	10	16	12	0	1	4	7	12	5	3	7	1	7	3	14	107(개)
	0.0	2.8	9.3	15.0	11.2	0.0	1.0	3.7	6.5	11.2	4.7	2.8	6.5	1.0	6.5	2.8	13.0	100.0(%)
2000	29	59	80	144	90	47	42	32	71	33	15	59	66	19	46	47	114	997(개)
	2.9	5.9	8.0	14.4	9.0	4.7	4.2	3.2	7.1	3.3	1.5	5.9	6.6	1.9	4.6	4.7	11.4	100.0(%)
2008	61	109	115	291	131	46	173	46	341	97	40	102	147	51	86	106	194	2,136(개)
	2.9	5.1	5.4	13.6	6.1	2.2	8.1	2.2	16.0	4.5	1.9	4.8	6.9	2.4	4.0	5.0	9.1	100.0(%)

주: 41종합 건설업, 42전문직별 건설업, 46도매 및 상품 중개업, 47소매업, 56음식점 및 주점업, 61통신업, 64금융업, 68부동산업, 71전문 서비스업, 75사업 지원 서비스업, 85교육 서비스업, 86보건업, 91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95수리업, 96기타 개인 서비스업, 100 기타

자료: 워싱턴 인쇄소, 각년도

중심이 되면서 한인 부동산업체는 둘루스로 집중하게 되었다. 그 결과 메트로 애틀랜타 전체 한인 부동산업체에 대한 둘루스의 비중은 2000년 7.0%(5개)에서 2008년 44.6%(152개)로 크게 증가하였다(표 7).

한인 금융업체의 지역별 분포는 둘루스(31.8%), 노크로스(29.5%), 애틀랜타(18.5%), 도라빌(13.3%)의 순으로 나타나 부동산업체의 분포와 마찬가지로 귀넷 카운티에 60% 이상이 입지하였다. 메트로 애틀랜타 전체 한인 금융업체에 대한 둘루스의 비중은 2000년 전무하였으나 2008년 31.8%(55개)로, 둘루스 인근인 노크로스의 비중은 2000년 4.8%(2개)에서 2008년 29.5%(51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메트로 애틀랜타 전체 한인 금융업에 대한 도라빌의 비중은 2000년 38.1%(16개)에서 2008년 13.3%(23개)로 크게 감소하였다(표 7). 이와 같이 한인 금융업체의 입지가 부동산업체의 입지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이유는 금융

업체 대부분이 부동산 구입을 위한 용자 및 대부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메트로 애틀랜타의 한인 소매업체는 1980년 전체 한인업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한인 중사 업종의 다양화와 전문화로 인해 그 비중이 계속 낮아졌다(표 6). 한인 소매업의 쇠퇴 원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비우량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주택 거래량의 급증으로 부동산업과 금융업이 크게 팽창하면서 전체 한인업체에 대한 소매업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둘째, 대형 한인 마트가 증가하면서 소규모 소매업체의 창업이 타격을 받아 한인 소매업체의 증가 속도가 과거에 비해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한인 소매업체의 지역별 분포는 둘루스(28.9%), 도

표 7. 메트로 애틀랜타의 한인 부동산업체 및 금융업체(1980~2008년)

(단위: 개(%))

County	City	1980년		1990년		2000년		2008년	
		부동산업	금융업	부동산업	금융업	부동산업	금융업	부동산업	금융업
Cobb	Marietta	1(50.0)	0	3(42.9)	0	2(2.8)	1(2.4)	7(2.1)	0
	Smyrna	0	0	1(14.3)	0	0	0	1(0.3)	1(0.6)
De Kalb	Chamblee	0	0	0	0	3(4.2)	4(9.5)	3(0.9)	4(2.3)
	Decatur	0	0	0	0	0	0	1(0.3)	0
	Doraville	0	0	0	0	11(15.5)	16(38.1)	31(9.1)	23(13.3)
	Tucker	0	0	1(14.3)	0	2(2.8)	0	3(0.9)	0
Fulton	Alpharetta	0	0	0	0	4(5.6)	0	4(1.2)	3(1.7)
	Atlanta	1(50.0)	1(100.0)	2	1(100.0)	29(40.8)	17(40.5)	48(14.1)	32(18.5)
	Rosewell	0	0	0	0	0	0	16(4.7)	0
Gwinnett	Buford	0	0	0	0	0	0	4(1.2)	1(0.6)
	Duluth	0	0	0	0	5(7.0)	0	152(44.6)	55(31.8)
	Lawrenceville	0	0	0	0	0	0	11(3.2)	1(0.6)
	Lilburn	0	0	0	0	0	0	10(2.9)	0
	Norcross	0	0	0	0	12(16.9)	2(4.8)	36(10.6)	51(29.5)
	Suwanee	0	0	0	0	0	1(2.4)	7(2.1)	2(1.2)
others		0	0	0	0	3(4.2)	1(2.4)	7(2.1)	0
Total		2(100.0)	1(100.0)	7(100.0)	1(100.0)	71(100.0)	42(100.0)	341(100.0)	173(100.0)

자료: 워싱턴 인쇄소, 각년도

표 8. 메트로 애틀랜타의 한인 소매업체(1980년-2008년)

(단위: 개(%))

County	City	1980년	1990년	2000년	2008년
Cobb	Marietta	2(22.2)	1(6.3)	10(6.8)	6(2.1)
	Smyrna	0	0	1(0.7)	1(0.3)
De Kalb	Chamblee	0	0	2(1.4)	4(1.4)
	Decatur	1(11.1)	2(12.5)	3(2.1)	7(2.4)
	Doraville	0	5(31.3)	43(29.5)	68(23.4)
	Tucker	0	0	0	1(0.3)
Fulton	Alpharetta	0	0	5(3.4)	6(2.1)
	Atlanta	6(66.7)	3(18.8)	32(21.9)	32(11.0)
	Rosewell	0	0	4(2.8)	4(1.4)
Gwinnett	Buford	0	0	0	4(1.4)
	Duluth	0	0	8(5.6)	84(28.9)
	Lawrenceville	0	0	4(2.8)	11(3.8)
	Lilburn	0	0	1(0.7)	0(0.0)
	Norcross	0	4(25.0)	19(13.0)	22(7.6)
	Suwanee	0	0	0	21(7.2)
others		0	1(6.3)	13(8.9)	20(6.9)
Total		9(100.0)	16(100.0)	146(100.0)	291(100.0)

자료: 워싱턴 인체소, 각년도

라빌(23.4%), 애틀랜타(11.0%), 노크로스(7.6%)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까지 한인 소매업체가 가장 많았던 도라빌에서는 과거 8년간 25개의 소매업체가 증가하였다. 반면 둘루스의 한인 소매업체는 2000년 8개에서 2008년 84개로 급격히 증가하였다(표 8).

그러나 지역 내의 전체 한인업체에 대한 소매업체의 비중은 둘루스보다 도라빌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인들 중 다수가 도라빌을 떠나 귀넷 카운티로 이주하면서 기존의 소규모 한인 소매업체가 영업 대상을 한인 중심에서 히스패닉과 흑인 중심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⁷⁾.

5. 결론

본 논문은 메트로 애틀랜타의 한인 인구와 한인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메트로 애틀랜타 한인사회의 성장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메트로 애틀랜타에 입지한 한인업체의 시기별 성장과정과 주요 지역 및 업종별 입지동향 분석을 통해 한인업체의 공간적 분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메트로 애틀랜타의 한인사회는 1967년 미국의 이민 쿼터제 폐지와 더불어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이후 많은 한인들이 메트로 애틀랜타로 유입되면서 2008년 현재 조지아의 한인 중 70% 이상이 메트로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인들이 메트로 애틀랜타에서도 귀넷 카운티를 비롯한 특정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메트로 애틀랜타의 한인업체는 1980년대에 애틀랜타가 속한 폴턴 카운티를 중심으로 입지하였으나 1990년대에는 폴턴 카운티 동쪽에 있는 디캡 카운티로 대거 이동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디캡 카운티의 북동쪽에 있는 귀넷 카운티로 급속히 이동하였다. 그리고 도시 수준에서도 한인업체의 주요 입지가 변화하였다. 디캡 카운티는 디케이에서 도라빌, 귀넷 카운티는 노크로스에서 둘루스로 입지의 중심이 이동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한인업체의 입지 중심이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교육 여건이 우수하고 교통이 편리한 귀넷 카운티의 둘루스로 한인들의 이주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한인업체의 입지 중심도 애틀랜타 북동쪽의 외곽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셋째, 한인업체의 주요 업종이 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도매 및 상품 증개업의 순에서 부동산업, 소매업, 금융업의 순으로 바뀌었다. 부동산업체와 금융업체의 증가는 한인의 급증과 더불어 클린턴 행정부가 저소득층의 주택 보유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도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반면 소매업체는 한인 종사 업종의 다양화와 전문화로 인해 그 비중이 계속 낮아졌다. 이는 대형 한인 마트가 증가하면서 소규모 소매업체의 창업이 타격을 받아 한인 소매업체의 증가 속도가 과거에 비해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주

- 1) 1980년 이전 조지아의 한인업체가 주로 애틀랜타에 입지한 이유는 1970년대 한국 간호사들이 애틀랜타로 모여들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 서비스업체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2) 애틀랜타 한인 부동산협회 회장과의 인터뷰(2010년 5월 27일)

- 3) 애틀랜타 조선일보(2009.08.25)에 따르면 요식업체의 수는 약 1,500개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나타난 음식점 및 주점업의 수는 181개(2008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는 지역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대부분의 요식업주가 광고가 영업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업체를 '한인록'에 수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4) 미국의 대출시장은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크게 프라임(prime) 단계, 서브 프라임(sub-prime) 단계, 중간 단계로 구분하는데, 통산 신용평가사인 FICO(Fair Issac and Company)의 평가점수(300~850점으로 분류) 중 620점 미만인 경우를 비우량 주택담보대출로 구분한다.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은 신용도가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아 우량 주택담보대출(prime mortgage)에 비해 금리가 2~3%p 정도 높다(신용상 외 2007: 3-6).
- 5) 애틀랜타 한인 부동산협회 회장과의 인터뷰(2010년 5월 27일)
- 6) 애틀랜타는 다운타운에 슬럼가가 형성되어 있어 학군이 나쁠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 부동산업체가 많이 입지한 이유는 애틀랜타 근교에 학군이 우수하여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가 행정구역 상 애틀랜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애틀랜타 한인 부동산협회 회장과의 인터뷰, 2010년 5월 27일).
- 7) 최근 소규모 한인 소매업체는 대형 한인 마트의 증가로 인해 성장의 한계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소규모 한인 소매업체는 영업 대상을 히스패닉과 흑인 등 다른 인종까지 확대하고 상품의 전문화 및 다양화를 통해 재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한인 식품협회는 소규모 한인업체의 로컬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 식품 구매를 통해 저가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식품 위생교육, 장학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조지아 한인 식품협회 관계자, 2010년 5월 28일)

참고문헌

- 김영성, 2006, 호주 한국인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거주이동, 지리학연구 40(4), pp.497-512.
 산은경제연구소, 2007,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화.

신용상 외, 2007,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분석과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와싱턴 인쇄소, 각 년도, 한인록.
애틀랜타 조선일보, 2009(08. 25), 애틀랜타 6대 한인업종 연매출 27억 불 넘어.
외교통상부, 2009, 재외동포현황.
윤흥기 · 임석희, 1997, 뉴질랜드 오클랜드지역 한국인의 생업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32(4), pp.491-510.
이전, 2001,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서울: 한울.
이전, 2002, 애틀랜타 한인 이민사, 서울: 푸른길.
이전, 2003, 한인 이민 교회의 성장과 그 기능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15(1), pp.31-46.
이전, 2008, 재미 한인2세들의 교회 활동과 정체성 문제-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한인 2세를 중심으로-, 한국 지역지리학회지 14(5), pp.573-586.
임석희, 2009, 미국 시카고 대도시권의 한국인 자영업 특성과 성격 변화, 국토지리학회지 43(2), pp.221-239.
최병목, 1996, 미국에서 한인 자영업에 관한 연구, 한국인문학 19(2), pp.139-173.
최협, 1997, 미국의 이민정책과 아시아계 미국인, 현대사회과학연구 8,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1-29.

Bishop, D. M., 1976, A Korean at Oxford, Emory Magazine 53(3).
Min, Pyong Gap, 1988, *Ethnic Business Enterprise: Korean Small Business in Atlanta*, Staten Island: Center for Migration Center.
U.S. Census Bureau, each year, Census.
U.S. Census Bureau, each year, American Community Survey.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교신: 이의한, 200-701,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전화: 033-250-6692, 이메일: euihan@kangwon.ac.kr
Correspondence: Eui-Han Lee,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Hyoja-dong, Chuncheon, Gangwon-do, 200-701, Korea, Tel: +82-33-250-6692, e-mail: euihan@kangwon.ac.kr

최초투고일 2011년 5월 15일
최종접수일 2011년 6월 9일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14, No.2, 2011(225~239)

Growth and Spatial Distribution of Korean Society in Metro Atlanta, Georgia, USA

Sung-Cheol Lee* · Eui-Han Lee**

Abstract :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is the growth process of new emerging Korean society in Georgia, the USA by investigating changes in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Korean business located in metro Atlanta region. More specifically, it aim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spatial distribution of Korean business in metro Atlanta through their locational trends since 1980s. To this end, it has explored the history of Korean migration into Georgia and the locational trends of Korean firms in metro Atlanta by industries. As a result, the main location of Korean firms has expanded into the northeastern regions of Atlanta due to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new regional development, education environment and changes in residential distribution by ethnic. Also, the main Korean business has transformed from retails and restaurant to real estate and finance because of changes in market strategies, institutions and Korean local migration.

Keywords : Georgia, metro Atlanta, location of Korean business, real estate, finance, retails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Seoul campus)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